

썩어가는 사과 냄새 속에서 글을 쓰다

프리드리히 실러
Friderich Schiller

1759~1805, 독일의 시인



실러의 작업실에서 서랍 하나는 항상 썩어가는 사과들로 가득했다. 실러는 사과가 썩는 냄새를 맡을 때 글을 써야 한다는 긴박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밤에 책상 앞에 앉으면 실러는 진한 커피나, 포도주를 섞은 코코아 혹은 라인 강변에서 생산된 백포도주나 샴페인 병을 옆에 두고 가끔 훌쩍이며, 피할 수 없는 심심의 피로감을 해소하는 습관이 있었다. 침묵에 젖은 한밤중에 실러가 연극배우처럼 힘주어 말하는 목소리가 이웃 사람들의 잠을 깨우곤 했다. 겨울에는 새벽 4시, 때로는 5시까지 책상을 떠나지 않았고, 여름에는 3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 그래서야 실러는 잠자리에 들었고, 9시나 10시에 눈을 떴다.





썩어가는 사과 냄새 속에서 글을 쓰다

- 프리드리히 실러 Friderich Schiller -



항상

작업실에 썩은 사과 두기



밤~04:00

진한 커피, 포도주 섞은 코코아, 백포도주, 샴페
인 마시기

연극배우처럼 힘주어 말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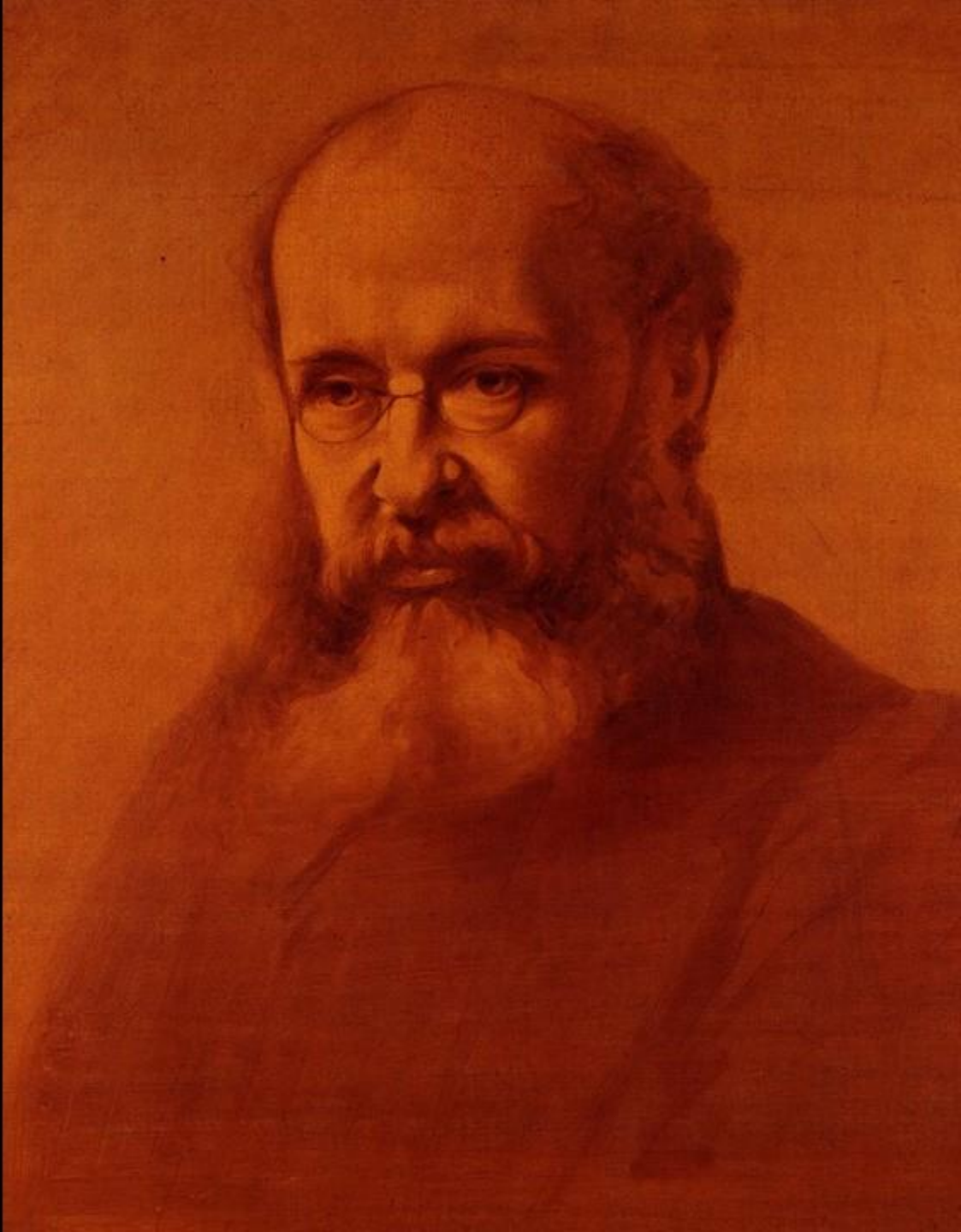
9:00

일어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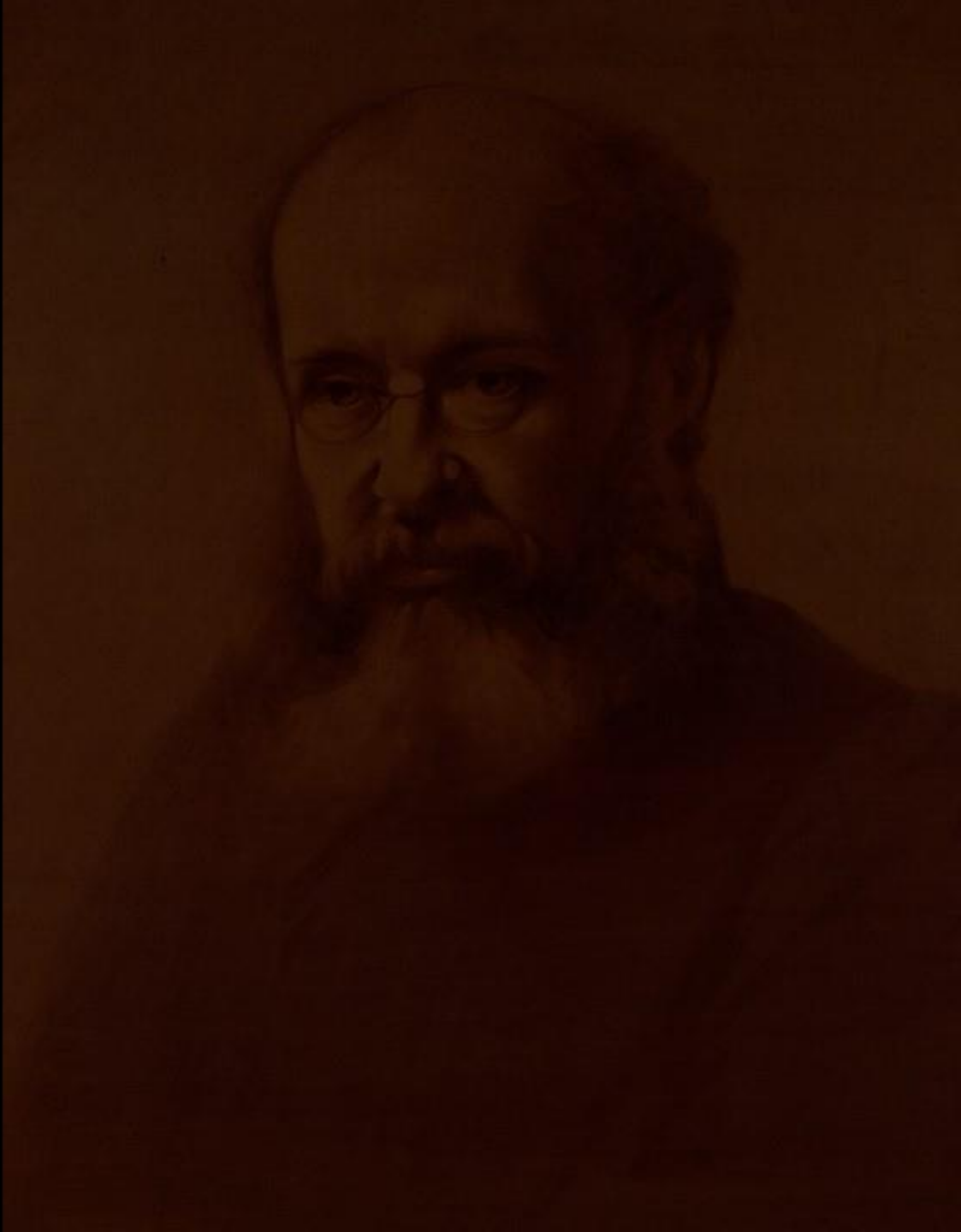
하루 세 시간의 글쓰기 습관

앤서니 트롤롭
Anthony Trollope

1815~1882, 영국의 소설가



나는 기계처럼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책상 앞에 앉았다. 이른 시간에 시작한 덕분에 나는 아침 식사를 위해 옷을 갖춰 입기 전에 제대로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다. 세 시간 동안 끊임없이 작업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몸담달돼 있어야 한다. 달리 말하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단어를 찾아낼 때까지 멍하니 앉아 펜을 물어뜯고 눈앞의 벽을 쳐다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신 훈련이 돼 있어야 한다. 당시 나는 앞에 손목시계를 놓아두고 글을 쓰며 15분에 240단어를 쓰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세 시간을 글쓰기에만 온전히 투자한 것은 아니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전날 쓴 작품을 다시 읽었다. 대략 30분쯤 걸렸는데, 단어와 수절의 소리를 귀로 평가하는 시간이었다. 시간을 이렇게 분할함으로써 나는 하루에 10페이지의 글을 쓸 수 있었다.





하루 세 시간의 글쓰기 습관

- 앤서니 트롤럽 Anthony Trollope -



5:30~8:30

전날 쓴 작품을 다시 읽기

몰입해서 작업하기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데이비드 린치
David Lynch

1946~ 미국의 영화감독 겸 작곡가



나는 지난 33년간 단 한 번도 명상을 중단한 적이 없다.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매일 20분 정도 명상을 한다.
그리고 나서 하루 일을 시작한다.

우리는 잡다한 일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가.
거기에 명상 하나를 더해서 습관화한다면
명상도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일부가 될 것이다.



미신처럼 지킨 두 시간의 산책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
Pyotr Ilich Tchaikovsky

1840~1893 19세기 말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곡가



“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두 시간의 산책이 필요하다는 글을
어디선가 보았는지, 형님은 오후의 산책을
미신처럼 받아들이며 엄격하게 지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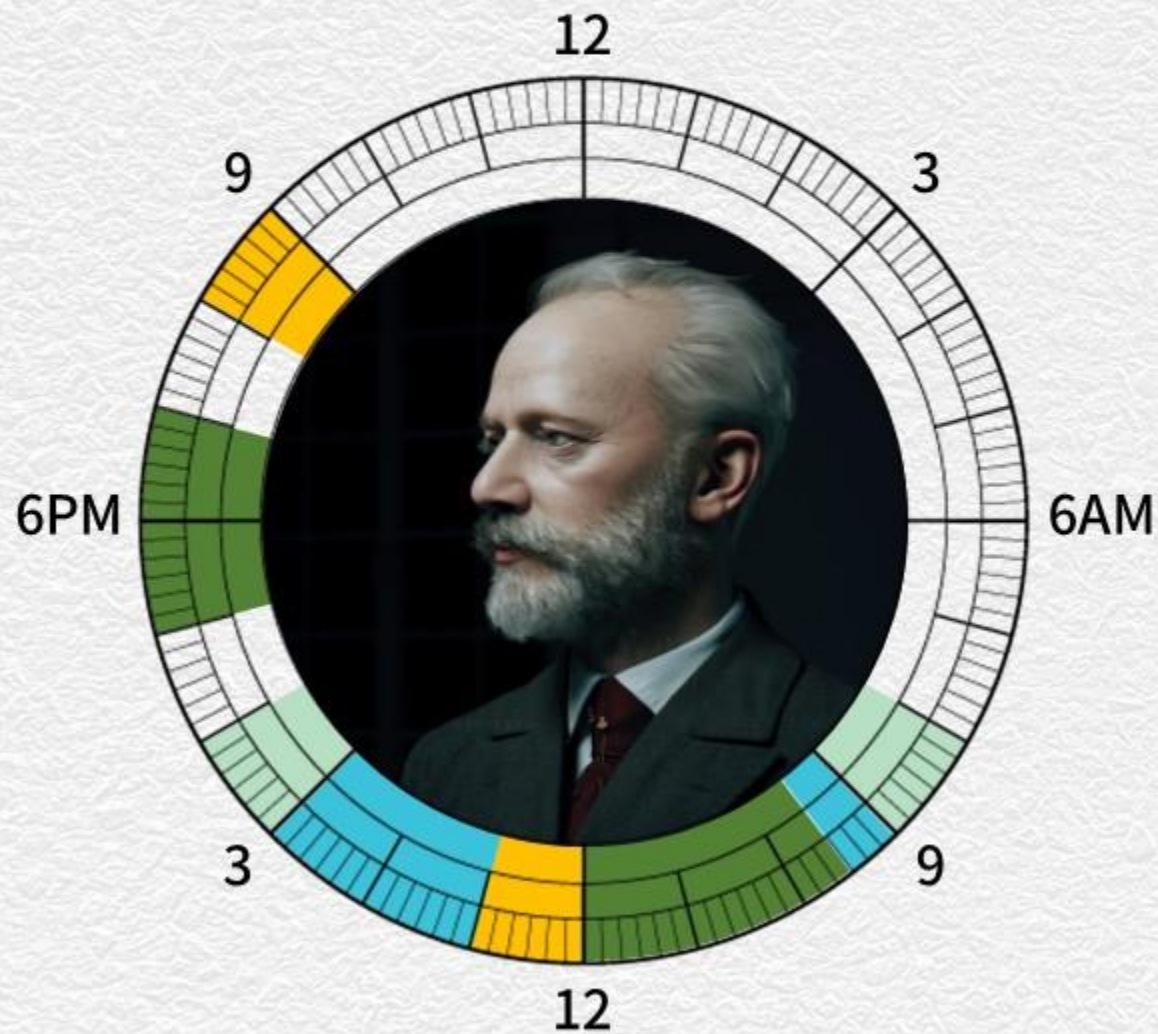
”

5분이라도 일찍 끝내면 병에 걸리고,
객관적으로 성명할 수 없는 불운이 닥칠 것처럼
정확히 두 시간 동안 산책했다.



기계처럼 짜여진 24시간의 일과

- 버러스 프레더릭 스키너 Burrhus Frederic Skinner -



- 08:00~09:00 • 담배 피우며 성격책과 스피노자·쇼펜하우어 책 읽기
- 09:00~09:30 • 산책하기
- 09:30~12:00 • 편지에 답장하고 교정쇄 인쇄 후, 작곡하기
- 12:00~13:00 • 점심 식사
- 13:00~15:00 • 산책하기
- 15:00~16:00 • 차 마시기
- 17:00~19:00 • 작곡하기
- 20:00~21:00 • 저녁 식사

직장을 가진 것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잘한 일

월리스 스티븐스
Wallace Steve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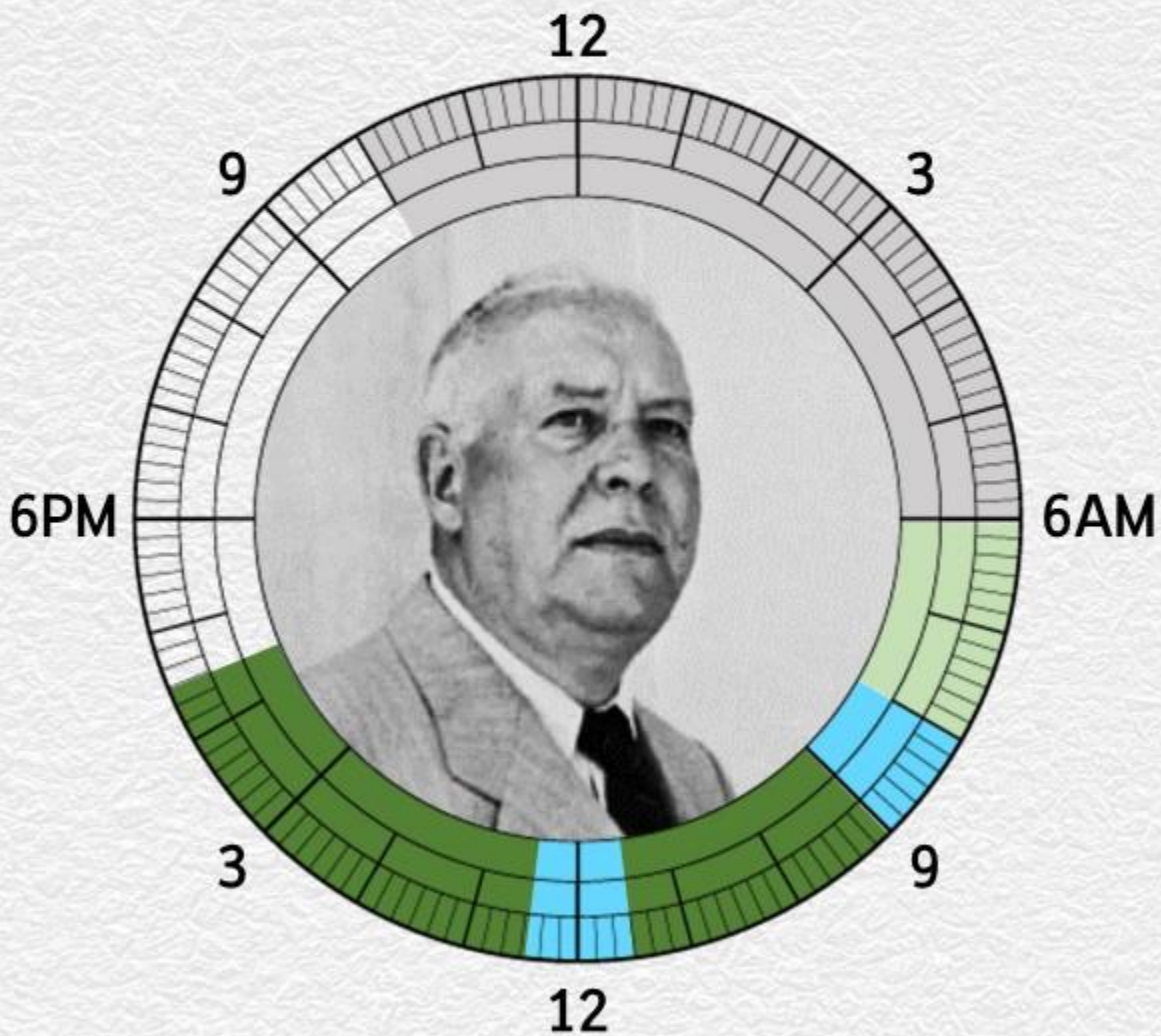
직장생활은 스티븐스의 창조적 상상력을 억누르기는 커녕
오히려 그의 시상을 북돋워준 듯했다.
그 때문인지 스티븐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생각에는 직장을 가진 것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잘한 일인 듯싶다.

직장 생활은 우리 삶에 절제력과 규칙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나는 원하는 만큼만 자유로우나,
돈에 대해 걱정할 것이 없다

직장을 가진 것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잘한 일

- 윌리스 스티븐스 Wallace Stevens -



06:00~08:00

• 잠자리에서 일어나 독서



08:00~09:00

• 4~6 킬로미터를 걸어서 출근
• 시상이 떠오르면 종이에 적어놓는다



09:00~16:30

• 변호사로서 보험사에서 근무
• 일하는 와중에도 영감 받으면 메모한다



점심 시간

• 산책하며 영감 받으면 메모한다
• 이렇게 쓴 시는 비서가 정기적으로 타이핑한다

내 습관은 단순하고,
내 취향은 진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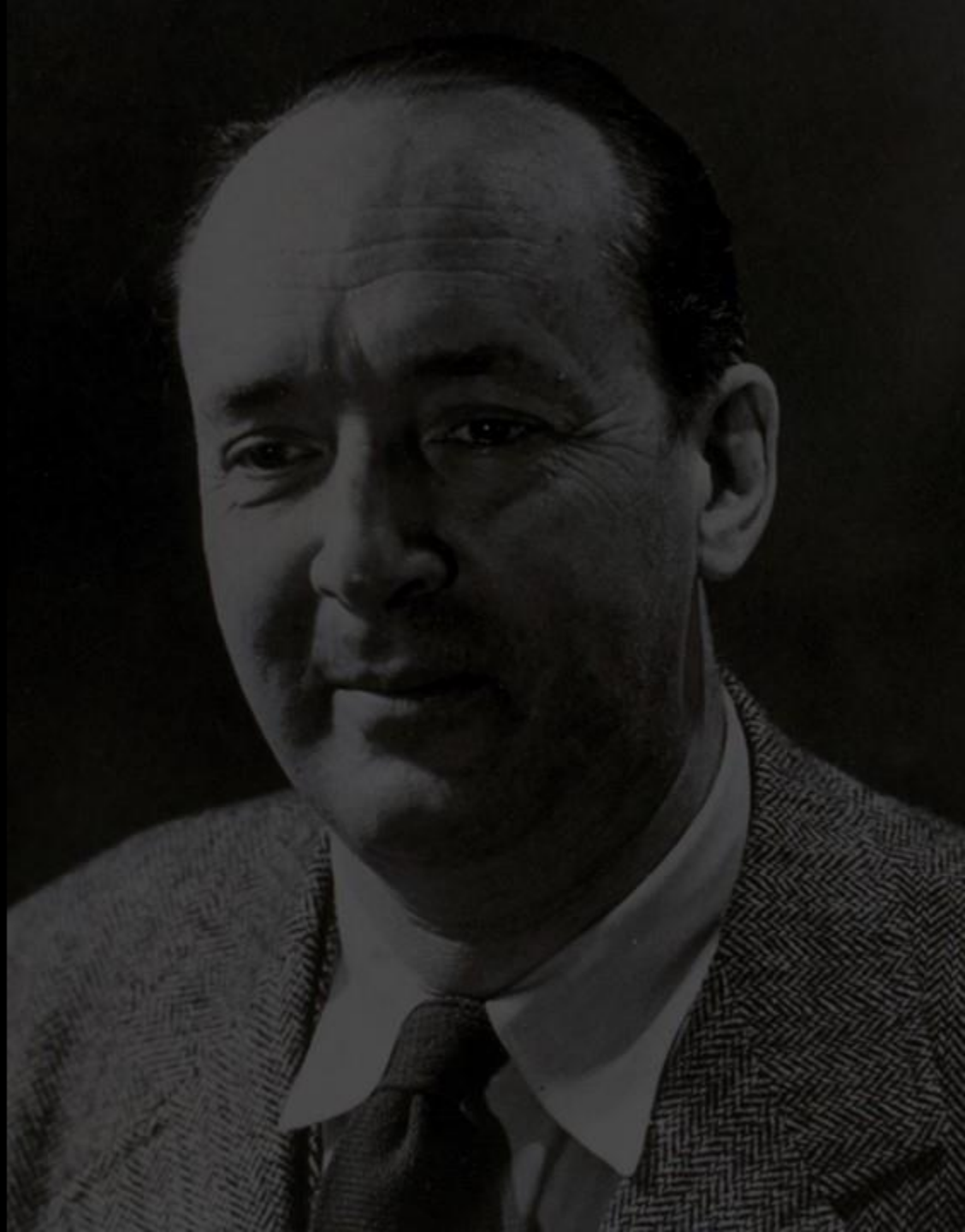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Vladimir Nabokov

1899~1977, 러시아 출신의 미국 소설가



“나는 서재에 있는 구닥다리 독서대 앞에 앉는 걸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중력에 장딴지가 육신거리기 시작하면 안락의자로 옮겨가 앉습니다. 중력이 등뼈를 따라 기어올라오기 시작하면 서재 구석에 있는 소파에 눕습니다”

겨울에는 7시쯤 일어납니다. 나는 침대에 잠시 누워 머릿속으로 하루 일과를 계획하고 조정합니다. 8시경에는 면도하고 아침 식사를 한 뒤 목상하고 목욕을 합니다. 그 후에는 서재에서 점심때까지 작업하고, 식사하기 전 잠깐 아내와 함께 호숫가를 산책합니다. 1시경에 아내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1시 반경에 서재에 돌아가 6시 반까지 작업에 몰두합니다. 작업을 끝내면 영자 신문을 구하고, 7시에 저녁 식사를 합니다. 9시에는 침대에 누워 11시 반까지 이런저런 책을 읽고, 새벽 1시까지 불면증과 싸웁니다.





내 습관은 단순하고, 내 취향은 진부하다

-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Vladimir Nabokov -



7:00

침대에서 하루 일과 계획
면도하기, 아침식사하기
묵상, 목욕하기



오전~점심

서재에서 작업
식사 전 아내와 산책
식사



13:30~18:30

작업에 몰두



19:00

저녁식사



21:00~23:30

책 읽기

하루도 빠짐없이 30분씩 써보라

거트루드 스타인
Gertrude Stein

1874~1946, 미국의 소설가



스타인은 매일 아침 10시경 일어나,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커피를 마셔야 한다. 스타인에게는 그녀만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대형 욕조가 있다. 스타인은 목욕한 후에 험령한 목욕용 모직 가운을 입은 채 글을 쓰기도 하지만, 옷을 갖춰 입고 야외에서 글 쓰는 걸 더 좋아했다. 두 여인은 포드를 몰고 나가 전망이 좋은 곳을 찾아간다. 스타인이 자동차에서 나와 연필과 종이를 쥐고 접의자에 앉으면, 토클러스는 겁도 없이 젖소한 마리를 스타인의 시선이 닿는 곳으로 끌고 온다. 그 위대한 여인은 젖소를 보고 영감을 얻으면 15분 정도 쉬지 않고 글을 써내려간다. 그러나 스타인이 핸들을 친 채 젖소들을 바라보며 멍하니 자동차 안에 앉아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루에 30분만 글을 써도 해가 거듭되면 많은 양이 된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하루에 30분씩 글을 써보라”





하루도 빠짐없이 30분씩 써보라

- 거트루드 스타인 Gertrude Stein -



10:00~

커피 마시기

욕조에서 목욕하기

글 쓰기